



봄을 깨운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 12·13·14·15면  
제 49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풀·하프코스 참가자들이 옛 전남도청을 시작으로 하는 명품코스를 출발하고 있다. 축축한 봄비가 내린 가운데 5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3·1 정신을 기리며 광주·전남의 봄을 깨웠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역단체장 '경선 = 결승' 전국 최대 격전지 예고

### 뉴스초점      민주·새정치 '신당 창당'과 호남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2일 6·4 지방선거 이전 신당 창당과 함께 기초선거 '무(無)공천'을 전격 선언함에 따라 지방선거 구도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야권발(發) 정계개편이 현실화됨에 따라 6·4 지방선거는 3자 구도에서 새누리당과 통합 신당의 양자 대결구도로 재편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사활을 건 각축을 벌여온 만큼 향후 신당에 걸맞는 새로운 경선룰 등이 정해지면 통합 신당 후보가 되기 위한 후보자간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새정치에 대한 기대와 야권 분열에 대한 우려가 엇갈렸던 지역 민심은 통합 신당 출범이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총선 및 대선 승리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통합 신당의 출범에 따라 호남에서의 '일당 독점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심과 우려도 보이고 있다.

일단, 통합 신당 출범 예정에 따라 호남의 지방선거 구도도 급변하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공방전이 예상됐던 광역 단체장 선거의 경우,

### 새로운 경선룰에 관심 일당독점 유지 우려도 기초 단체장 선거 현역 대 단일후보 싸움

통합 신당의 출범으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예선 전인 '경선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반면, 기초 단체장 선거의 경우 통합 신당의 '무공천'에 따라 호남지역에서는 '현역 대 무소속 단일 후보'의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호남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통합 신당이 직접 나서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무소속 후보들의 '단일화' 구도를 지원하면서 사실상 야권 단일 후보와

새누리당 후보의 양자 구도를 만들어 가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통합 신당이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 구조라는 점에서 화학적 결합 여부와 함께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경선룰' 마련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원과 지역민의 의사 반영을 위한 상향식 공천이 원칙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지분 나눠먹기 식의 전락공천도 고려될수는 있겠지만 구태 정치는 강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원 경선을 놓고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이 사실상 당원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당 후보 경선에서 당원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은 당원 경선, 국민참여경선, 여론조사 등을 병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통합 신당 창당이 이르면 3월 말, 늦으면 4월초로 예상됨에 따라 호남지역의 광역 단위 후보 경선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빠르면 4월 중순, 경선 룰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진다면 4월말이나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통합 신당이 호남을 중심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차제에 신당에 걸맞는 단체장 후보 경선 룰을 마련해야 하는데,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흥행을 담보할 수 없겠는데 대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새정치 3월말 신당 창당

### 김한길·안철수 전격 합의 제3지대 신당 ... 지분 5대5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2일 3월말을 목표로 제3지대 신당 창당방식의 통합을 전격 선언했다.  
<관련기사 2·3·4·5면>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측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새 정치

를 위한 신당창당으로 통합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정권교체를 실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와 여당이 대선 때의 거짓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도 선언했다.

통합 신당 창당 시기와 관련, 민주

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3월 하순에 (창당)전당대회를 할 것"이라며 "3월말까지 법적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6·4 지방선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새정치연합간 3자구도에서 새누리당과 통합신당의 양자 대결구도로 급속히 재편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결정한 뒤 이를 안 위원장에게 전달하면서 통합을 제의했고, 두 사람은 1일 두 차례 회동을 거쳐 2일 새벽 0시40분께 최종적으로 '제3지대 신당'을 통한 통합에 합의했다.

양측은 5대5 지분으로 참여, 창당준비단을 구성한 뒤 정경정책 등 신당창당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면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순차적으로 이에 합류하는 방식(제3지대 신당)으로 창당 및 통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양측은 이날 오후 곧바로 실무단 회의를 가진 데 이어 3일 신당추진단 회의를 열어 신당 창당 일정과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신당의 당명이나 지도부 구성 등도 이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 사랑채에서 6·4 지방선거 전 신당 창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통통제 협조 감사합니다

광주일보사는 지난 1일 일부지역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을 참아가며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대회 성공을 위해 힘써주신 광주시, 전남도, 시·도체육회, 시·도생활체육협의회, 광주·전남 육상경기연맹, 광주지방경찰청, 광주 동부·서부·남부경찰서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방법원장**을 끝으로 22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하오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력 및 경력 -

- 나주 출생, 나주초고, 공성(버드실중), 금호고
-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 연구소 방문 학사
- 언론중재 위원회 중재 부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광주 남구, 광산구, 나주, 담양, 광양, 신안)
- 광주 지법 순천지원, 광주 고법 판사
- 광주 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 광주지정지원장
- 광주지정법원장

변호사 강 신 중 올림

■ 업무개시 : 2014. 2. 17 (월)      ■ 업무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중법로 6, 2층(법원후문 밑)  
■ 대표전화 : 062) 229-6600~2,      ■ 팩스 : 062) 229-6603      ■ 개업소년 : 2014. 3. 6(목) 17:00부터

## The New E 300 4 MATIC Avantgarde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11번지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00 1,991cc, 1,63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0km/ℓ(도시연비 10.5km/ℓ, 고속도로연비 14.6km/ℓ), 3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45g/km      ■ E 220 CDI 2,143cc, 1,780kg, 자동7단, 복합연비 16.3km/ℓ(도시연비 14.2km/ℓ, 고속도로연비 19.8km/ℓ), 1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20g/km      ■ E 250 CDI 4MATIC 2,143cc, 1,843kg, 자동7단, 복합연비 14.2km/ℓ(도시연비 12.8km/ℓ, 고속도로연비 16.4km/ℓ), 2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39g/km      ■ E 300 3,498cc, 1,735kg, 자동7단, 복합연비 10.3km/ℓ(도시연비 8.9km/ℓ, 고속도로연비 12.7km/ℓ), 4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72g/km      ■ E 300 4MATIC 3,498cc, 1,830kg, 자동7단, 복합연비 9km/ℓ(도시연비 7.9km/ℓ, 고속도로연비 10.9km/ℓ), 5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97g/km      ■ E 350 4MATIC 3,498cc, 1,803kg, 자동7단, 복합연비 9.2km/ℓ(도시연비 8.2km/ℓ, 고속도로연비 11.1km/ℓ), 5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92g/km

\*본 연비는 표준조건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수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